



S&P, 스페인 신용등급 1단계 강등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국제신용평가사인 S&P가 10월 14일 스페인 신용등급을 ‘AA’에서 ‘AA-’로 1단계 강등하고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도 ‘부정적(negative)’이라고 평가함.

- S&P는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으로 높은 실업률과 부채 수준, 수출 상대국의 경기침체 가능성 등으로 인한 경제 성장세 불안과 은행들의 유동성 위험 확대를 제시함.
- 특히, 일부 전문가들은 스페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인 ‘2011년 말 기준 국내 총생산(GDP) 대비 재정적자 비율 6% 달성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, 유로존 주요국으로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함.

〈표 1〉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현황

일시	국가	주요 내용
2011년 7월 5일	포르투갈	● 무디스 ‘Baa1’에서 ‘Ba2’로 강등
2011년 7월 12일	아일랜드	● 무디스 ‘Baa3’에서 ‘Ba1’으로 강등
2011년 7월 13일	그리스	● 피치 ‘B+’에서 ‘CCC’로 강등
2011년 7월 25일	그리스	● S&P ‘CCC’에서 ‘CC’로 강등
2011년 7월 27일	그리스	● 무디스 ‘Caa1’에서 ‘Ca’로 강등
2011년 8월 5일	미국	● S&P ‘AAA’에서 ‘AA+’로 강등
2011년 8월 24일	일본	● 무디스 ‘Aa2’에서 ‘Aa3’로 강등
2011년 10월 4일	이탈리아	● 무디스 ‘Aa2’에서 ‘A2’로 강등
2011년 10월 14일	스페인	● S&P ‘AA’에서 ‘AA-’로 강등

자료: 국제금융센터.